

발야구로 골든글러브 도전장 낸 '올보 유격수'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11> 내야수 박찬호

"더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년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에서 활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IA타이거즈가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 지을 때 두 번 모두 눈물을 흘린 선수는 내야수 박찬호, 단 한 명이었다.

2년 연속 유격수 골든글러브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맹활약에도 유독 마음고생이 많았던 한해를 보냈다.

박찬호는 지난해 130경기에 나서 타율 0.301(452타수 136안타), 3홈런, 30도루, 52타점, 73득점을 기록했다. 10경기를 남겨놓고 사구로 적격 분쇄 굴절을 당해 시즌을 조기 마감했지만 프로 통산 10시즌 만에 처음으로 3할 타율을 이룬 해였다.

공격보다는 수비 비중이 큰 포지션 중 하나인 유격수에서 3할 타율을 기록한 만큼 박찬호는 골든글러브의 유력한 후보로도 꼽혔다.

KBO 수비상에서도 LG트윈스 오지환과 투포 및 기록 합산 점수에서 동률을 이루며 유격수 부문 공동 초대 수상자에 올라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기록을 반영하지 않고 투표로만 수상자를 결정하는 골든글러브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표심이 우승 팀 주전 유격수이자 주장이었던 오지환을 향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했다.

2년 연속 규정 타석 3할 맹타 KS 2·4차전 선제·결승 득점 5차전에서는 발로 만든 동점 "내년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박찬호는 선수 생활의 목표 중 하나였던 골든글러브를 놓쳤음에도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 시즌 출루율과 장타율에서 발전을 다짐하며 더 독하고 절실하게 겨울을 보내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결국 박찬호는 처음으로 풀타임 소화와 3할 타율 함께 이루는 등 우승에 기여했다.

134경기에서 타율 0.307(515타수 158안타), 5홈런, 20도루, 61타점, 86득점을 기록했고 출루율과 장타율도 각각 0.356에서 0.363, 0.378에서 0.386으로 발전을 이뤘다.

단기전인 한국시리즈에서는 박찬호의 존재감이 더욱 빛났다. 1차전에서 3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에 그친 박찬호는 수비에서 두 차례 실책을 범하며 팀 승리에 고개를 숙였으나 2차전에서는 1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을 얻어 출루한 뒤 김도영의 땅볼에 홈을 밟으며 선취점이자 결승점을 책임졌다.

이어 3차전에서 5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팀의 모든 득점을 책임졌음에도 패배로 빛이 바랬지만 4차전에서는 1회초 선

두타자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낸 뒤 나성범의 땅볼에 홈을 밟으며 다시 선취점이자 결승점을 만들었다.

열두 번째 우승의 피날레였던 5차전에서도 5회말 1사 1·2루에서 땅볼로 출루한 뒤 김윤수의 폭투에 두 베이스를 내달리며 동점을 만들어낸 뒤 8회말 1사 2루에서는 썩기타까지 때렸다. 최종 성적은 타율 0.318(22타수 7안타), 1타점, 7득점.

이렇게 공수주에서 모두 균형 잡힌 활약을 펼쳤음에도 시즌내내 비판도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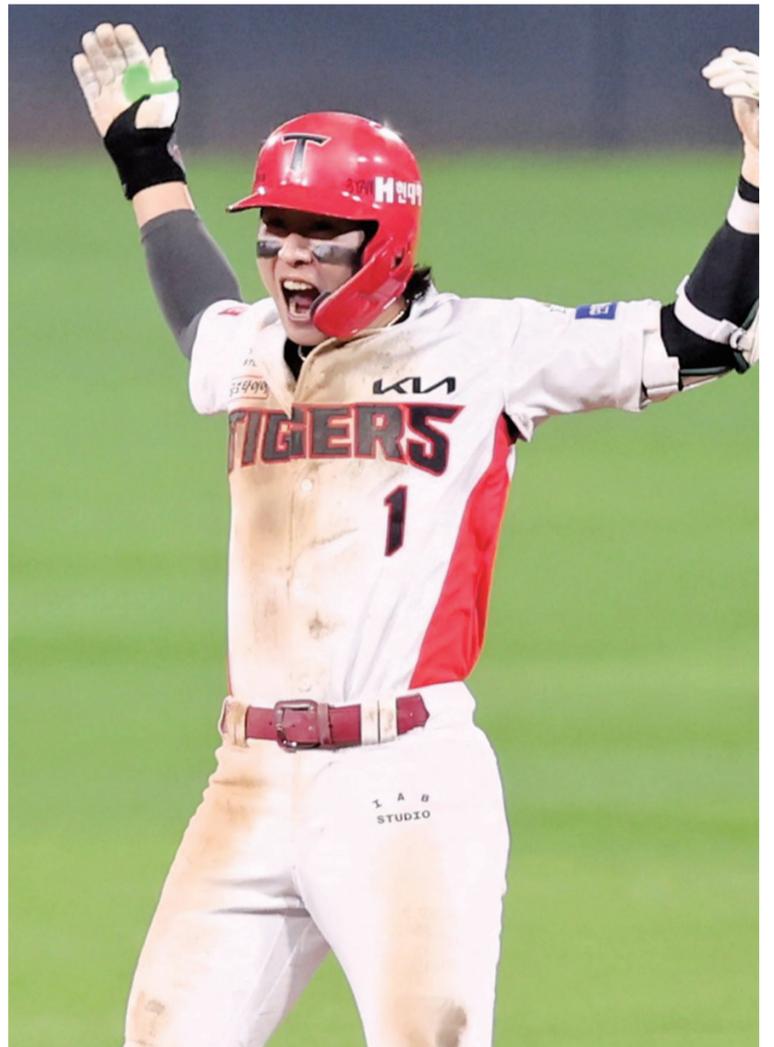
안정적인 수비보다는 도전적인 수비를 추구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탓에 일부 팬들에게 겉멋만 들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이다.

이범호 감독 역시 우승 기자회견에서 "박찬호의 플레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약간 건들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박찬호처럼 매일 땀 흘리는 선수가 많지 않다. 선수는 아픔이 있어도 출전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최고고, 그런 면에서 박찬호는 우리 팀에서 가장 큰 그릇을 가진 선수"라고 감싸 안았다.

박찬호도 이런 평가들을 의식한 듯 우승이 확정된 직후 "마지막에 이렇게 한 건 이라도 해서 너무 다행"이라며 "더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내 "내년에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지막까지 박찬호다운 각오이자 인사였다.

한규빈 기자



KIA타이거즈 박찬호가 지난달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 8회말 1사 2루에서 썩기 적시 2루타를 때린 뒤 포효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장현식 농친 KIA, 보상 선수로 강효종 품었다

내달 국군체육부대 입대 예정 "나이 어리고 성장 가능성 높아"

KIA타이거즈가 투수 장현식과 LG트윈스의 자유 계약(F.A)에 따른 보상 선수로 투수 강효종(사진)을 지명했다.

2002년생의 어린 나이에 군 복무까지 예정된 만큼 미래 자원으로서의 성장 여부가 기대를 모은다.

KIA는 투수 강효종을 LG로부터 보상 선수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현식은 지난 11일 LG와 계약금 16억원과 연봉 36억원 등 4년 총액 52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G는 자동 보호 대상인 군 보류 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25명의 보호 선수 명단을 꾸렸다.

KIA는 장현식이 새 동지를 틈 직후 현금 대신 보상 선수를 택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LG가 두터운 선수층을 구축한 만큼 유망주와 즉시 전력감을 두루 검토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보호 선수 명단을 검토한 KIA의 선택은 미래 자원인 강효종이었다. 총암고 소속으로 1학년과 2학년 때부터 우완 정통 파로 두각을 나타낸 강효종은 2021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으며 LG에 입단했다.

강효종은 슬라이더와 커브 등 변화구 구위와 제구에 강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고, LG가 퓨처스리그는 물론 1군 무대에서 선발 경험을 부여하며 육성



공을 들였던 자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일취월장한 기량으로 김유영, 박명근과 5선발 경쟁에서 승리하며 개막 선발진에도 포함됐다.

이후 직구 제구와 투구 수 관리 등을 보완하기 위해 퓨처스리그에서 조정기를 가진 강효종은 정규시즌 우승 확정을 앞두고 1군에 다시 등록돼 세리머니에도 함께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 시즌 동안 아홉 경기에 나서 2승 2패와 평균자책점 6.43의 성적을 남긴 강효종은 다음 달 2일 국군체육부대(상무 피닉스)에 입대해 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다.

KIA로서는 강효종이 상무에서 복귀하는 2026년 6월이면 더 치열해질 선발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 양현종과 이의리, 윤영철 등 현재 좌완 선발이 풍족한 KIA는 황동하와 김도현 등 우완 선발 육성에 집중해 왔다.

KIA 관계자는 "1차 지명으로 프로에 입단한 만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코칭스태프에서도 이견이 없었다"며 "국군체육부대에서 한층 더 성장해서 합류한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자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3년만 재도전' 전남드래곤즈, 이번엔 1부리그 오를까

2018년 이후 6년째 K리그2 잔류 내일 부산과 준플레이오프 관전

2018시즌 최하위로 강등의 아픔을 겪은 뒤 6년째 K리그2에 머무르고 있는 전남드래곤즈가 1부리그 복귀를 노린다. 2021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 좌절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올해는 반드시 승격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하나은행 K리그2 2024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준플레이오프 승리 팀은 오는 24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울이랜드 FC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전남은 지난 9일 서울이랜드 FC와 정규라운드 최종전(39라운드)에서 4-0 대승을 거두며 올 시즌 16승 9무 11패(승점 57)를 기록, 4위에 오르며 준플레이오프를 안방에서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준플레이오프의 안방 개최 외에도 어드밴티지가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가 무승부로 종료될 시 연장전 없이 정규라운드 상위 팀이 승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남은 3년 전 준플레이오프에서 이 규정에 발목을 잡힌 아픔이 있다. 2021시즌을 4위로 마쳤던 전남은 준플레이오프에서 3위 대전하나시티즌과 맞붙었으나 0-0 무승부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쳤다.

하지만 올해 전남의 위치는 다르다.



전남드래곤즈가 21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하나은행 K리그2 2024 준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2022년부터 K리그 승강제가 1+1에서 1+2로 확대되면서 플레이오프 범위가 4위에서 5위까지 확대됐고, 전남은 이번 준플레이오프를 하위 팀이 아닌 상위 팀의 위치에서 맞게 됐다.

전남은 올 시즌 부산과 세 차례 맞대결에서 1승 2패로 근소한 열세에 있고 안방에서는 두 번 모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는 단기전의 특성상 정규라운드와는 180도 달라진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통산 전적 역시 전남이 38승 21무 31패로 크게 앞서 있다.

이장관 전남 감독은 부산을 상대로 좋

은 기억이 있는 김종민과 발디비아, 유로쥬 플라카를 선봉에 세워 선제 득점을 노릴 전망이다. 김종민은 올 시즌 부산과 첫 맞대결에서 선제골 겸 결승골을 터트리며 유일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발디비아는 부산과 두 번째 맞대결에서 1득점 1도움으로 전남의 모든 득점에 관여했고, 플라카도 세 번째 맞대결에서 골맛을 봤다. 정규라운드 최종전에서도 발디비아가 중거리 골, 플라카가 멀티골을 터트리며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탄탄한 수비도 관건이다. 이 감독은 정규라운드 최종전에서는 최원철을 수비형 미드필더, 김예성과 유지하, 홍석현, 김용환을 포백으로 기용하며 무실점을 이끌어냈다. A매치 휴식이 있었던 만큼 수비 조합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감독은 정규라운드를 마친 뒤 "올 시즌을 앞두고 미디어 데이에서 팬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 우리 팬들과 전남도민들이 염원하는 승격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